



7월 중 과창판 IPO 유력한 CXMT와 유니트리

Hana China Weekly | 2026.7.10

Analyst 백승혜 sh_baek@hanafn.com

Analyst 송예지 yeajisong@hanafn.com

RA 안기량 giryangan@hanafn.com

주요 이슈 점검

CXMT(688825.SH): 청약일 7/16으로 확정, 월말 상장 유력

- 7/9 상하이거래소 공시를 통해 커창반 IPO 청약일이 7/16(목)으로 공식 확정. 온라인·오프라인 청약 모두 동일 일자 진행 예정. 공모 규모 295억 위안으로 SMIC 이후 커창반 역대 2위 규모의 초대형 IPO로 알려짐. 과거 커창반 IPO의 발행 절차 사례에서 통상적으로 8~12일(거래일 기준 6~8일) 소요된다는 점 감안 시 CXMT의 예상 상장일은 2026년 7월 마지막 주(27~29일 전후)가 가장 유력하며, 절차가 다소 길어질 경우 8월 초 상장 예상. CXMT IPO를 계기로 중국 반도체 국산화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재평가 기대가 확산되며 이번주 반도체 섹터 강세 시현.

유니트리(비상장): IPO 이후 산업 밸류에이션 재평가 예상

- 유니트리 IPO 이후 산업 밸류에이션 재평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7/2 유니트리는 중국 과창반 상장 승인을 획득했고 7월 중 상장이 예상되고 있음. 유니트리는 IPO를 통해 42억위안을 조달해 AI 모델 개발, 신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투자할 계획. 유니트리는 저가 전략을 기반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저변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하드웨어 플랫폼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이를 기반으로 유니트리 플랫폼을 활용한 알고리즘과 개발 도구, 애플리케이션 생태계가 확대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생태계까지 경쟁력이 강화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단기적으로는 유니트리 상장으로 투자 수요가 완성 로봇 업체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확대에 따라 관련 부품 업체들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기대.

샤오핑(XPEV.US): 로보택시 비공개 베타 테스트 시작, 2027년 L5 자율주행 목표

- 7/9 샤오핑은 로보택시 비공개 베타의 첫 운영을 완료, 허샤오핑 CEO가 첫 번째 이용자로 참여. 허 CEO는 지난해 11월 로보택시 계획 발표 이후 올해 1월 일반도로 시험주행, 5월 양산차 생산, 이번 비공개 베타 개시까지 전 과정을 8개월 만에 완료했으며, 이는 당초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라고 평가. 해당 차량은 중국 최초의 완전 자체 개발·양산형 로보택시로, 플래그십 SUV GX를 기반으로 제작됐으며 L4 수준 자율주행을 지원. 자체 개발한 Turing AI 칩 4개를 탑재해 3,000TOPS의 연산 성능을 구현했으며, 이는 양산차 기준 세계 최고 수준의 컴퓨팅 성능. 또한 라이다와 HD맵 없이 순수 비전 기반 자율주행을 구현했으며, 의사결정에는 자체 개발한 2세대 VLA(Vision-Language-Action) 2.0 대규모 AI 모델이 적용. 샤오핑은 2026년 하반기 로보택시 시범 운영을 시작해 기술 완성도와 이용자 수용성, 사업성을 검증할 계획이며, 2027년 초 안전요원 없는 완전 자율주행 상용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음.

반도체

CXMT(688825.SH): 청약일 7/16으로 확정, 월말 상장 유력

- 7/9 상하이거래소 공시를 통해 커창반 IPO 청약일이 7/16(목)으로 공식 확정. 온라인·오프라인 청약 모두 동일 일자 진행 예정. 공모 규모 295억 위안으로 SMIC 이후 커창반 역대 2위 규모의 초대형 IPO로 알려짐. 과거 커창반 IPO의 발행 절차 사례에서 통상적으로 8~12일(거래일 기준 6~8일) 소요된다는 점 감안 시 CXMT의 예상 상장일은 2026년 7월 마지막 주(27~29일 전후)가 가장 유력하며, 절차가 다소 길어질 경우 8월 초 상장 예상. CXMT IPO를 계기로 중국 반도체 국산화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재평가 기대가 확산되며 이번주 반도체 섹터 강세 시현.

무어쓰레드(688795.SH): 바이두 딥러닝 플랫폼 'PaddlePaddle'과 호환성 테스트 완료

- 7/3 플래그십 AI 학습·추론 통합 연산 카드 'MTT S5000'이 바이두(9888.HK) 산하 딥러닝 플랫폼 'PaddlePaddle'과 3급 호환성 테스트를 완료. 테스트 결과 양사 호환성이 우수하고 시스템 전반의 안정적인 구동이 확인됐으며, Paddle-MUSA 연산자 적응률이 91%에 달해 LLM·OCR·이미지 분류·객체 탐지·추천 시스템 등 주요 딥러닝 시나리오를 커버. PaddlePaddle은 바이두가 개발한 중국 최초의 자체 딥러닝 프레임워크로 2025년 말 기준 개발자 2,300만명, 서비스 기업 76만 개를 보유한 중국 최대 AI 개발 플랫폼. 이번 3급 호환성 인증은 엔비디아 GPU 없이 국산 GPU(무어쓰레드)+국산 딥러닝 플랫폼(바이두 PaddlePaddle)의 완전한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국산화 조합이 실용 수준에 도달했음을 공식 검증.

화웨이(비상장): 'Mate 90' 시리즈에 Tao(τ)의 법칙 기반 칩 탑재 예정

- 7/6 현지 매체에 따르면 올 가을 출시 예정인 'Mate 90' 시리즈에 'Tao(τ)의 법칙' 기반의 신규 기린 칩을 탑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Tao(τ)의 법칙은 화웨이 반도체 사업부 총괄이 5/25 국제전자회로시스템학술대회에서 처음 제시한 중국 기업 최초의 반도체 산업 발전 원칙으로, EUV 장비 없이 '논리 폴딩(LogicFolding)' 기술을 활용해 트랜지스터 밀도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독자적 기술 경로로 알려짐. 화웨이발 국산 AI 칩 훈풍으로 오전장 강세를 보였던 Iluvatar CoreX(9903.HK), Biren(6082.HK) 등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대장주의 급락에 동조하며 하락 전환하며 각각 6.9%, 4.2% 약세 마감.

중지쉬창(300308.SZ): 미국 규제로 광모듈 핵심 원재료 차단 루머 확산

- 7/5 온라인상에서 미국의 수출 규제로 인해 광모듈 핵심 원재료인 광학소자(전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미국과 일본이 독점 중) 공급이 차단됐다는 루머가 확산. 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였으나 사측은 즉각 "현재 기존 조달 채널을 통해 원재료를 정상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생산과 운영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공식 반박. 7/6 중지쉬창 주가는 3.3% 하락 마감.

이차전지

CATL(300750.CH): 물류용 경상용 전기차 8C 초급속 충전 배터리 공개

- 7/6 CATL, 물류용 경상용차를 위한 8C 초급속 충전 배터리 'Tectrans II' 출시. 해당 배터리는 6분 48초 만에 80%, 8분 56초 만에 100% 충전이 가능해 내연기관 차량의 주유 시간에 근접한 충전 속도를 구현. 또한 최대 10년·100만km 보증을 제공하며, 내부 저항 감소와 소재 개선을 통해 발열과 배터리 열화를 최소화. 영하 20°C 환경에서도 충전 시간이 약 2분 30초만 추가돼 저온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 한편, CATL은 승용차와 상용차를 모두 지원하는 Choco 배터리 교환소도 함께 공개했으며, 2026년 중국 약 190개 도시에서 4,000개의 교환소를 구축할 계획.

CATL(300750.CH): 바이오 기반 흑연 확보로 배터리 원재료 공급망 강화

- 7/6 CATL은 뉴질랜드 기업 CarbonScape와 협력해 바이오 기반 흑연 생산을 확대할 계획. CarbonScape는 임업 부산물을 리튬배터리용 흑연으로 전환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CATL과 홍콩 투자회사 Lochpine Capital은 CarbonScape 지분 20%를 확보하며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 흑연은 배터리 음극재의 핵심 원료로, 시장조사업체 Benchmark Mineral Intelligence에 따르면 현재 중국이 글로벌 흑연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을 제외한 지역은 최소 2031년까지 공급 부족을 겪을 것으로 예상. 또한 CarbonScape는 배터리급 흑연의 글로벌 수요가 2025년부터 2040년까지 약 6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

전기차

샤오미(1810.HK): 신규 전기차 시리즈 Sky Nomad 공개

- 7/9 샤오미는 Sky Nomad를 SU7·YU7에 이은 두 번째 EV 제품 시리즈로 공식 발표, 지능형 가변형 대공간 SUV를 콘셉트로 제시. 이를 위해 2023년 초부터 신규 Kunlun 플랫폼 개발을 진행해왔으며, EREV SUV 형태로 출시될 예정. Sky Nomad는 주차 시에는 1인 스튜디오, 2인 카페, 3인 응접실, 가족 놀이공간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움직이는 생활공간'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 차량에는 70kWh 이상 배터리가 탑재되고 순수 전기 주행거리 400~500km를 제공할 것. Sky Nomad는 Aito M9 등 대형 EREV SUV와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며, 배터리는 Sunwoda(60%)와 CALB(40%)가 공급할 계획. 판매가격은 20만위안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5인승과 7인승 모델로 출시될 예정. 샤오미는 2026년 차량 인도 목표를 55만대로 제시했으며, 이는 2025년 약 41만 대 대비 약 34% 증가한 수준.

샤오핑(XPEV.US): 로보택시 비공개 베타 테스트 시작, 2027년 L5 자율주행 목표

- 7/9 샤오핑은 로보택시 비공개 베타의 첫 운영을 완료, 허샤오핑 CEO가 첫 번째 이용자로 참여. 허 CEO는 지난해 11월 로보택시 계획 발표 이후 올해 1월 일반도로 시험주행, 5월 양산차 생산, 이번 비공개 베타 개시까지 전 과정을 8개월 만에 완료했으며, 이는 당초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라고 평가. 해당 차량은 중국 최초의 완전 자체 개발·양산형 로보택시로, 플래그십 SUV GX를 기반으로 제작됐으며 L4 수준 자율주행을 지원. 자체 개발한 Turing AI 칩 4개를 탑재해 3,000TOPS의 연산 성능을 구현했으며, 이는 양산차 기준 세계 최고 수준의 컴퓨팅 성능. 또한 라이다와 HD맵 없이 순수 비전 기반 자율주행을 구현했으며, 의사결정에는 자체 개발한 2세대 VLA(Vision-Language-Action) 2.0 대규모 AI 모델이 적용. 샤오핑은 2026년 하반기 로보택시 시범 운영을 시작해 기술 완성도와 이용자 수용성, 사업성을 검증할 계획이며, 2027년 초 안전요원 없는 완전 자율주행 상용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음.

립모터(9863.HK): 멕시코에서 전기차 인도 시작

- 7/6 립모터는 멕시코 공식 진출. B10 SUV의 현지 인도를 시작했으며 C10, C16 모델도 순차적으로 출시 예정. 립모터는 2026년 연간 100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음.

AI/테크

알리바바(9988.HK): 긍정적 실적 달성 전망

- 7/8 Citi가 1QFY27(6월 마감 분기) 실적 프리뷰 보고서를 통해 매출 전망치를 2,698억 위안(YoY +8.9%)·비GAAP 순이익 271억 위안으로 상향 조정. 긍정적 실적을 예상하는 배경으로는 첫째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외부 고객 매출 성장률이 현재 40%를 넘어 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둘째 타오바오 플래시(淘宝闪购)·어러머(饿了么) 등 즉시배달 사업의 순손실 축소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 중. Citi는 해당 사업 손실이 이번 분기 약 100억 위안 수준으로 감소하고 FY27 내 단위경제(UE)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전망.
- 7/3 현지 매체에 따르면 알리바바가 Claude Code의 백도어 삽입 보안 리스크를 이유로 동 틀을 내부 고위험 소프트웨어 명단에 등재, 7/10부터 사내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자체 개발 AI 코딩 플랫폼 'Qoder' 사용을 권장. 금번 조치는 Claude Code 전용 금지에 그치지 않고 Sonnet·Opus·Fable 등 앤스로픽 전 제품 라인으로 확대된 공급업체 리스크 기반의 전면 단절 조치.
- 7/4 산하 Qwen(千问·통이치엔원)이 사용자 자체 제작 AI 에이전트 기능을 7/15부로 전면 종료한다고 공지. 7/10부터 의인화 인터랙션류 에이전트 및 사용자 자체 제작 에이전트가 먼저 종료되며, 7/15 전체 에이전트 서비스가 완전히 종료. 종료 후 관련 에이전트 설정 및 대화 기록 접근 불가.

바이트댄스(비상장): 자체 AI 에이전트 종료, 마오샹 앱으로 이전

- 7/4 산하 더우바오(豆包)가 사용자 자체 제작 AI 에이전트 기능을 7/15부로 전면 종료한다고 공지. 기능 종료 후에도 10/15까지는 기존 에이전트 정보 및 대화 데이터 열람·저장이 가능하나, 10/15 이후 관련 데이터 전면 삭제 예정. 에이전트 기능은 산하 '마오샹(猫箱)' 앱으로 이전 안내 중.

콰이쇼우(1024.HK): 텐센트, 콰이쇼우 주식 매각

- 7/6 장 마감 후 텐센트(0700.HK)가 산하 자회사 Tencent Mobility를 통해 콰이쇼우 B클래스 주식 2억 7,295만주를 장외 블록딜 방식으로 독립 제3자 다수 매수자에게 매각했다고 공지. 주당 매각 가격대는 43.15~44.53홍콩달러(당일 종가 46홍콩달러 대비 약 6% 할인), 최대 매각 금액은 약 121.6억 홍콩달러(약 16억 달러)로 추산. 거래 완료 후 텐센트 지분율은 15.68%에서 9.37%로 하락하며 홍콩거래소 규정상 '주요 주주'에서 제외됨. 텐센트는 "콰이쇼우의 장기 발전 전망에 신뢰를 갖고 있으며 전략적 협력 관계는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으나, 연초 이후 콰이쇼우 주가가 -26.8% 하락한 상황에서의 대규모 매각이라는 점에서 시장 일각에서는 AI 시대 투자 포트폴리오 재배분 차원으로 해석.
- Kling AI 180억달러 밸류에이션, 30억달러 조달 소식에 7/6 콰이쇼우 주가는 +8.0% 강세 마감. 텐센트가 이번 라운드 주요 투자자로 참여하며 12개월 내 홍콩거래소 상장 절차 개시 예정.

메이탄(3690.HK): 차세대 AI 기초 모델 LongCat-2.0 오픈 소스 공개

- 차세대 AI 기초 모델 LongCat-2.0 오픈소스 공개 소식에 7/6 메이탄 주가는 +4.7% 강세 마감. MoE 아키텍처 기반 1.6조 파라미터·100만 토큰 컨텍스트·국산 산력 카드 5만장 클러스터 학습 완료. OpenRouter 글로벌 총 호출량 3위·Claude Code·OpenClaw·Hermes 등 주요 에이전트 시나리오에서 월간 호출량 글로벌 상위권을 기록하며 '가성비+오픈소스' 전략으로 글로벌 개발자 생태계 침투를 가속 중.

텐센트(0700.HK): 자사 대형 AI 모델 정식 출시

- 7/6 텐센트는 자사 대형 AI 모델의 최신 버전 '혼원 Hy3'를 정식 출시. MoE 아키텍처 기반 총 파라미터 2,950억개(추론 시 활성화 파라미터 210억개)·256K 컨텍스트를 지원하며, 자사 대비 파라미터 규모가 2~5배 큰 국내외 플래그십 모델과 유사한 성능을 구현했다고 밝힘. 270명 전문가 대상 실제 업무 기반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Hy3(2.67/4)가 즈푸시 GLM-5.1(2.51/4)을 상회.

즈푸시(2513.HK): 락업 해제 후 대규모 매물 출회 없다는 소식에 강세

- 7/7 즈푸시가 "A주 커창반 IPO 지도을 철회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공식 부인하는 공시를 발표하며 장중 최대 +10% 이상 급등, 장중 최고 1,689홍콩달러를 기록. 즈푸시는 공시를 통해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실제 상황과 부합하지 않고 악의적 투기성 보도 성격이 있다"고 명시.
- 7/8 첫 번째 락업 해제일(총 발행주식 5.76%, 약 2,568만주·현 주가 기준 약 420억 홍콩달러 규모)을 통과한 후 실제 대규모 매물 출회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며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 해제 대상 물량이 주로 전략적 투자자 및 기관 장기 보유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매도 압력이 시장 예상보다 낮았다는 분석. 7/8 즈푸 시 주가는 +13.4% 상승 마감.

딥시크(비상장): 자체 AI 칩 개발 검토 중

- 현지 매체에 따르면 딥시크가 외부 AI 칩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 AI 칩 개발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확산. 시리즈A 500억 위안 조달(밸류에이션 4,000억 위안) 완료 후 조달 자금의 일부를 자체 칩 개발에 배분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으로, 외부 공급사 의존에서 벗어나 모델 학습 추론 전 과정을 자체 하드웨어로 내재화하려는 방향으로 해석. 성사 시 중국 AI 칩 생태계에서 딥시크가 수요자에서 공급 경쟁자로 전환되는 구조적 변화로, 기존 국산 AI 칩 업체들의 최대 고객사 중 하나가 이탈하는 시나리오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

미니맥스(0100.HK): 락업 해제일에 주가 급락

- 7/9 상장 후 첫 대규모 락업 해제일을 맞아 7/9 미니맥스 주가는 -18.0% 급락. 시총이 1,000억 홍콩달러를 하회하며 3월 고점(4,100억 홍콩달러) 대비 약 78% 증발. 이번 해제 규모는 총 발행주식의 48.9%(약 1.53억주·약 594억 홍콩달러)로, 기존 유통 주식 비중이 6% 미만에서 해제 후 약 50%로 급팽창하며 공급이 약 10배 확대되는 구조.

로보틱스

정부가 제시한 휴머노이드 10만대 시대

- 7/6 중국 공업정보화부(MIT)는 2026년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량이 1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밝힘. 이는 2025년 중국 로봇 출하량인 1.5만대에서 크게 증가한 수준이며 기존의 시장 전망치인 5만대의 2배 수준. 이에 따라 완성 로봇 업체뿐 아니라 핵심 부품 업체들의 중장기 성장 가시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

리더드라이브와 에스톤, 실적과 사업 재편이 이끈 차별화된 주가 흐름

-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 밸류체인 기업의 매출은 아직 대부분 기존 유압 및 자동차 부품 사업에서 발생. 따라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높은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업의 주가는 부진한 모습을 보임. 실적 개선과 휴머노이드 사업 확대가 동시에 확인된 리더드라이브(YTD +110%)와 에스톤(YTD +86%)만이 차별적인 주가 흐름을 나타냄. 다만, 리더드라이브와 에스톤의 주가는 현재 12MF P/E 기준 각각 436배, 168배 수준으로 단기적으로는 높은 밸류에이션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리더드라이브는 중국 휴머노이드 산업 확대에 따른 하모닉 감속기 수요 증가의 직접적인 수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음. 리더드라이브의 하모닉 감속기 생산 능력은 올해 2배 이상 확대되며 중국 휴머노이드용 하모닉 감속기 시장 점유율은 90%에 달할 것으로 전망. 여기에 글로벌 베어링 및 정밀기계 부품 제조업체인 SKF와의 합작법인을 설립해 글로벌 생산능력과 공급망 확보 기대가 더해지면서 단순한 중국 부품 업체를 넘어 글로벌 공급업체로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되고 있음. 에스톤 역시 기존 산업용 로봇 기업에서 휴머노이드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됨. 에스톤은 7/2 자회사 Estun Cordoid(휴머노이드+협동 로봇)를 조기 편입하기로 결정, 이는 기존 산업용 로봇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휴머노이드와 협동로봇 중심으로 확대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

유니트리 IPO 이후 산업 밸류에이션 재평가 예상

- 유니트리 IPO 이후 산업 밸류에이션 재평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7/2 유니트리는 중국 과창반 상장 승인을 획득했고 7월 중 상장이 예상되고 있음. 유니트리는 IPO를 통해 42억위안을 조달해 AI 모델 개발, 신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투자할 계획. 유니트리는 저가 전략을 기반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저변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하드웨어 플랫폼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이를 기반으로 유니트리 플랫폼을 활용한 알고리즘과 개발 도구, 애플리케이션 생태계가 확대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생태계까지 경쟁력이 강화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단기적으로는 유니트리 상장으로 투자 수요가 완성 로봇 업체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확대에 따라 관련 부품 업체들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기대.

중국 1등주 포트폴리오 현황

편입 종목	주간 수익률 (%)	PER (배)	ROE (%)	매출(YoY, %)		순이익(YoY, %)		EPS 성장률 (%)	EPS 변동률 (%p)	실적 발표일
				2026E	2027E	2026E	2027E			
캠브리콘(688256.CH)	13.5	151.2	36.7	174.6	86.5	187.4	93.4	209.6	0.0	2026-08-07
해광정보(688041.CH)	11.7	181.3	17.8	52.4	41.3	75.3	55.9	83.9	(0.3)	2026-08-19
비렌테크(6082.HK)	(5.0)	-	1.9	127.6	258.1	적지	흑자	적지	0.0	2026-08-19
일루바타코어엑스(9903.HK)	(7.5)	-	(12.3)	167.8	117.6	적지	흑자	적지	0.0	2026-08-19
북방화창(002371.CH)	7.7	82.9	17.4	28.5	28.4	38.2	44.7	39.7	(11.3)	2026-08-25
AMEC(688012.CH)	14.0	127.3	13.1	33.5	34.2	60.8	42.0	113.9	3.6	2026-08-19
SMIC(0981.HK)	7.7	80.2	4.8	23.2	18.2	53.4	39.0	51.2	1.1	2026-08-07
JCET(600584.CH)	13.9	85.9	7.0	12.1	14.4	40.7	38.5	46.7	0.0	2026-08-20
란치테크놀로지(688008.CH)	7.1	93.8	23.0	36.4	47.0	59.8	50.1	63.0	0.9	2026-08-31
빅토리아이언트(300476.CH)	(3.7)	30.7	30.1	74.9	71.6	112.7	77.1	93.3	1.1	2026-08-26
중지취창(300308.CH)	7.1	48.7	61.9	149.9	73.8	178.9	75.4	154.5	0.5	2026-08-23
폭스콘산업인터넷(601138.CH)	7.4	23.3	30.8	63.1	33.2	74.1	32.9	70.9	0.0	2026-08-11
즈푸AI(2513.HK)	13.3	-	38.4	351.8	175.0	적지	적지	적지	0.0	2026-08-19
알리바바(BABA.US)	15.6	17.2	8.8	9.7	12.1	(10.1)	38.7	112.8	(1.7)	2026-08-28
텐센트(0700.HK)	8.9	13.5	19.3	10.3	9.4	6.8	10.7	27.0	(0.0)	2026-08-12
바이두(BIDU.US)	3.7	14.6	5.4	2.9	7.7	160.6	18.8	20.9	0.0	2026-08-20
레노버(0992.HK)	12.9	16.0	29.3	13.2	11.8	32.0	22.8	27.3	3.3	2026-08-13
샤오미(1810.HK)	8.9	18.9	10.1	4.8	17.0	(33.2)	34.5	(7.5)	(0.4)	2026-08-14
유비테크(9880.HK)	(19.5)	-	(4.8)	92.2	51.3	적지	흑자	적지	0.0	2026-08-31
BYD(1211.HK)	(1.7)	16.4	14.8	13.8	9.9	22.1	27.7	30.2	(0.9)	2026-08-14
CATL(300750.CH/3750.HK)	(1.2)	17.9	25.2	44.1	21.2	33.4	23.1	40.7	0.2	2026-07-30
양광전력(300274.CH)	(1.7)	16.9	26.7	16.0	18.5	10.7	23.1	18.3	(1.3)	2026-08-28
선도지능(300450.CH/0470.HK)	(5.7)	24.7	17.0	32.3	26.8	59.8	38.8	52.1	0.0	2026-08-28
허사이테크(HSAI.US)	(4.6)	28.6	6.4	44.3	39.5	26.3	63.9	30.7	0.0	2026-08-14
중천과기(600522.CH)	(6.1)	26.8	14.7	21.3	14.2	114.3	37.9	109.3	0.0	2026-08-27
사원전기(002028.CH)	(5.0)	28.3	24.4	33.5	30.5	39.9	37.7	41.5	2.9	2026-08-14
동방전기(600875.CH)	(3.5)	20.2	9.9	11.4	9.1	32.1	27.8	25.4	(0.6)	2026-08-28
평균	3.3	50.7	17.7	60.9	47.3	59.8	41.5	63.3	(0.1)	

주1: PER, ROE, EPS 성장률은 2026년 전망치 기준, EPS 변동률은 전주대비 기준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백승혜, 송여지)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7월 10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백승혜, 송여지)는 2026년 7월 3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